

📻 (주)탐라회원권거래소 문의: 064)745-8884

漢拏曰那 제 9048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2월 10일 월요일**(음력 1월 17일)

알림

선택2020 제주의 미래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공동기획 III 아젠다 20

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10여년째 '헛바퀴'

조세·재정 등 핵심권한 이양되지 않아 한계 봉착 풀뿌리 자치 활성화 등 행정체제개편 재검토 시점 제21대 국회 선량들 과제 '완성·관철' 시켜야할 몫

한라일보와 제민일보, JIBS 등 언론3 사는 4·15총선과 관련 세번째 공동기 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대 아젠 다(의제)' 선정을 통해 정책선거를 견인키로 했다. 아젠다는 2020년에 치러지는 상징성과 그동안 실시된 20 회의 선거역사 등을 감안, 언론 3사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 했다. 다만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 할 수 있도록 2개 항목씩 묶어 10회 에 걸쳐 소개한다.

<1>특별자치도·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제주특별 자치도 출범 이후 대통령선거 2회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가 각각 3회씩 치러졌다. 모두 6회에 걸친 선거의 공통 아젠다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된 완전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준연 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 완성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 중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 위 확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 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로 조세, 재정 등 핵심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분권형 선진국가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

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제주 의 입장이다. 또 중앙정부의 재정 지 원 및 특례 확보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면 세특례제도 확대, 중앙권한 이양 소 요비용 반영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 로 요구하고 있다. 제주대 양덕순 교 수는 "현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에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이 소멸상태에 놓여 있다. 헌법적 지위 확보는 장기 과제로 설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 재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보다 강화된 실질적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시 행 13년여 동안 자치분권과 국제자 유도시조성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이뤄냈지만 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

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과 실질적 권한 이양 등에 관한 한 아직 갈 길 이 멀다"고 말했다.

중앙정치권은 선거때마다 제주특 별자치도의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도민들을 '농락' 한 것이나 다름없다. 형평성 논리 등을 앞세워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도민들의 희망을 수용하 지 않거나 일부는 더딘 속도로 반영 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제주특별자치도 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체계가 광역 제주도로 통합되고,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체제로 전환 됐다. 때문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로 인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실, 주민참여의 한계, 정치시장의 협소로 인한 잠재적 정치인재 배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 2면에 계속

언론3사 공동취재단

유료 판매부수 제주도내 1위, 신뢰도 1위 신문 환경 중심, 사람 중심, 칭찬하는 신문 뉴미디어 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는 한라일보가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제주의 가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꿈,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mark>제출서류</mark> : 1.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최종학력증명서 ▶ 수습/경력기자 0명 3. 자격·면허 사본 ※ 경력직은 동일직종 2년 이상 <mark>전형방법</mark>: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서류접수: ty064@hallailbo.co.kr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재학생 지원 불가(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 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있는 자는 참여 가능 접수마감 : 2020년 2월 13일(목) 18:00까지 의 : 한라일보 경영기획실 064)750-253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우세요

확진환자 '0' ··· 신종 코로나 청정 제주

유증상자 의사환자 46명 음성·1명 검사진행 중 자체 방역·예방활동 등 영향 큰 고비 넘기는 듯

중국인 확진자와 접촉한 집중관찰대 상자 14명이 8일 0시를 기해 격리해 제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현 재 확진환자 0, 격리중 환자 0명인 청정지역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현재까지 유증상자 의사환자는 47 명이 신고 됐으며 46명은 음성판정 을 받았고, 1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밝혔다.

회의 전파 우려도 존재했지만 도민 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함께 바이 러스 유입방지를 위한 민관 협업, 재 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 등으로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제주도는 판단 하고 있다.

특히 민간 차원의 방역활동이 빛 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 난 4일부터 전 읍면동에서 '우리 동 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운동을 대대 적으로 전개하며 도민들에게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과 홍보 리플 릿을 배부하면서 예방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부족한 인력 확보 와 대응 장비 구입 등을 목적으로 긴

급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키 로 했다. 총 예산은 62억8800만원이 다. 방역·검역 등 신종 감염병 대응 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조달로 계약된 물품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품기한 연 기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중국 내 협력업체로부터 부품 수급이 어려워 제주 지역 업체들이 기한 내 물품 생 그동안 2차 감염에 대한 지역 사 산과 납품에 차질을 빚을 것을 고려 한 결정이다.

> 이외에도 외국인 민원에 발 빠르 게 대응하기 위해 10일부터 주요 선 별진료소와 보건소에 외국어 통역 상담사를 배치키로 했다. 외국어 통 역 상담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 국인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감염증 관련 상담과 진료 문의 과정에서 통 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조상윤기자

본사 사령

▷논설위원 김기현 ▷편집국장 조상윤

▷편집국 선임기자 이윤형

2020년 2월 10일자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 총회 조직위 출범·회의

9월 14~20일 행사 앞둬 진행

오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열리는 '2020년 세계지질공원 제주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7일 한라수목원 세미나실에서 세계지질 공원 총회 조직위원회 1차 회의를 진 행했다.

세계지질공원 총회에는 유네스코 관계자와 세계지질공원 회원국 등 70여개국에서 1500여명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예산 9억5000만원 이 투입된다.

예정된 일정은 9월 14~16일 세계 지질공원 이사회 및 대륙별 네트워 크 회의, 17~18일 총회 개막식, 세션 및 워크숍 운영, 19일 제주도 지질공 원 현장답사, 20일 세션 운영 및 폐 막식 등으로 구성됐다.



'**신종 코로나'차단 위한 버스정류장 소독 청소작업** 8일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회장 안창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26개 읍·면·동 지도자들과 함께 제주시 버스정류장 1241개소를 대상으로 소독 청소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조직위 원회는 세션 진행자 후보군 작성, 답 사지별 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답사 장소 탐방환경 정비, 일반 세션 좌장 로스 회장을 비롯해 강만생 제주도 전달됐다.

선정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세계지질

공원 네트워크(GGN) 니콜라스 조

유네스코 등록유산관리위원장, 이용 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조직위 원회에 참여하는 56명에게 위촉장이 송은범기자





도민과 함께한!



70년간 힘이 되어 주신 도민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100년 향토기업으로 제주의 가치를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 100프로 제주인 지분의 순수향토기업 (참이슬이 한라산소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 매년 당기순이익의 30프로 지역환원
-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수상
- 12개국 수출로 제주 브랜드가치 제고

















